

모로코 대지진과 리비아 대홍수로 피해 입은
모든 생명들에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재난 앞에 하나님의 온 창조세계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특별히 지난 8일과 12일 모로코와 리비아 지역에서 각각 발생한 대지진과 대홍수로 수천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낸 천재지변 앞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을 해당 지역의 모든 시민들과 에큐메니칼 공동체에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와 같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우리 한국교회는 희생당한 이들이 차마 감당치 못할 크나큰 고난과 고통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를 자처하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우정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본회는 다시한번 참혹한 기후재난 앞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엄숙히 되돌아보며 지진과 홍수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동료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큰 상처를 입은 채 그곳에 남아 비극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깊은 위로와 돌봄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신 품 안에서 하루 속히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롬 8:22)
“평화의 주님께서 어느 모양으로든지 항상 여러분에게 친히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살후 3:16)

2023년 9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강연홍 회장 김종생 총무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순창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연홍 총회장
구세군한국군국 장만희 사령관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윤창섭 총회장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우시흥 총회장
기독교한국루터회

